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대상, 필요성, 이 기능이 있어야하는 타당성

시장성

키위봇

사용 대상 : 캠퍼스 내 배달 (음식, 책)

필요성

1. 인건비 절감 (인간 배달비보다 저렴)

2. 위치 바로바로 확인 가능

3. 배달원 사고 예방 (인명피해 절감)

4. 간단한 심부름 기능(퀵 서비스 대신)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는 자율주행 차량을 단거리 배송에 활용하면 비용을 최소 40%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 : 경인문화신문(http://www.kcnnews.co.kr)

타당성

1. 이미 키위캠퍼스에서 개발한 키위봇은 19년 6월까지 약 20만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충분히 실현가능성 있음)

2.

점자 의사소통 기구

사용 대상 : 시청각 장애인

필요성

1. 장애인-비장애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2. 장애인 사회진출 지지

정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제외되므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시각과 청각에 중복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이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언어, 민족, 문화가 다양한 사람은 물론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어떠한 개념적인 정립조차 돼 있지 않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생소한 시청각중복장애. 헬렌 켈러를 안다면 금방 이해를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렵게 다가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장애인복지법에서 명확하게 하나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루 빨리 우리나라의 시청각중복장애인들도 그들의 권리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의 명언처럼 이 세상의 일부인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타당성

1. 이미 국내에만 1만여명 이상의 시청각 장애인이 있고 그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있다.

2.

opencv를 이용한 차선인식 api